

영한 번역에 나타난 번역투 문장

김순영 · 동국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교수

1. 들어가기

영어에서 한국어가 되었든, 반대로 한국어에서 영어가 되었든, 혹은 다른 여타의 언어 조합이든 간에 번역이란 서로 상이한 두 개의 언어 체계가 접촉하고 타협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타협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 곧 번역이다.¹⁾ 원본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번역의 특성상, 상이한 두 언어 체계가 만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번역가가 어떤 전략을 취하는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원천 언어의 어휘나 통사구조가 목표언어 텍스트에 전이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영한 번역의 경우처럼 어휘 및 문법 차원에서부터 언어 활용에 이르기까지 언어 체계가 완전히 다른 두 언어 간의 번역에서는 번역가가 목표 텍스트에 대한 고려 없이 직역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 원천언어인 영어의 특성이 그대로 전이되어 목표 텍스트에 고스란히 번역의 ‘흔적’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남겨진 번역의 흔적들은 번역서를 읽는

1) 야콥슨(Jakobson, 1959)이 정의한 것처럼 번역은 크게 언어 내 번역, 언어 간 번역, 기호 간 번역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전이 과정이 수반되는 언어 간의 번역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말로 쓰인 글을 읽을 때와는 어딘지 모르게 ‘다르다’거나 ‘어색하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번역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러한 번역의 흔적들은 목표언어에서는 이질적인 특정 어휘의 용법이라든가, 낯선 통사 구조라든가, 또 더러는 부자연스러운 어순 등과 같은 모습으로 발현되는데 학문적으로는 이를 ‘번역투’라 이름 붙여 부르고 있다. 김정우(2007: 61)의 정의에 따르면 번역투는 어떤 글에 원본이 아닌 번역이라는 흔적이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텍스트상의 특성을 가리킨다. ‘번역’과 ‘투’로 이루어진 이 말에서 ‘투’는 ‘어떤 말이나 글이 일정하게 버릇처럼 굳어진 방식’을 뜻하므로 번역투라는 말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의 영어 표현인 ‘translationese’를 보더라도 ‘translation(번역)’에 접미사 ‘-ese’가 붙어 만들어진 어휘로, 사전적 정의²⁾에 따르면 접미사 ‘-ese’는 흔히 경멸적인 의미에서 특정 집단이나 직업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언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이근희(2005: 29)에서 들고 있는 예를 참조해 보자면 ‘journalese(신문기사투)’, ‘legalese(법률문투)’, ‘officialese(관청용어투)’ 등이 여기에 속한다.

번역투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번역을 수행하는 번역가이지만, 완성된 텍스트 안에서 그것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이는 번역서의 독자이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출판되는 도서 중 대략 30퍼센트가 번역서이며, 그중에서도 이른바 베스트셀러로 분류되는 도서의 70퍼센트는 번역서가 차지한다고 한다.³⁾ 전공 서적이거나 학습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의 경우 주로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책을 위주로 독서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을 때, 일반 독자들이 국어로 쓰인 책을 읽을 확률보다 번역서를 읽게 될 확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 통신 기

2) 야후 영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접미사 -ese의 세 번째 정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3) 2011년 11월 10일 자 교보문고 북뉴스.

술의 발달에 힘입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통 방식이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개인이나 동호인들이 모여 만든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비전문가의 번역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⁴⁾ 이처럼 번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실제로 번역 결과물의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남에 따라 번역이 국어에 미치는 영향, 좀 더 구체적으로는 번역투가 국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김정우(2007: 67~68)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번역투에는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있다. 영어식의 어법이 그대로 전이되어 국어에는 없는 낯선 문장 구조가 전형화되어 쓰인다거나,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구문은 항상 특정 형태로만 일대일 대응하여 쓴다거나 하는 것은 부정적 영향이지만, 번역을 통해 우리말의 표현을 더욱 풍요롭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국어에 일대일 대응어가 없는 이국적인 요소나 문화적 개념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영향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번역투라 하더라도 번역가가 그 기능과 파급 효과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언어적 요인은 물론이고 이국 문화의 수용이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면 번역 텍스트의 특성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맥락에 따라 좀 더 다채로운 국어 표현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원문의 구조와 형식이 그대로 전이된 번역투를 생산해 낸다면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미국 드라마(일명 ‘미드’) 열풍이 일면서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한 비전문가 자막 번역이 크게 늘었고, 김순영·정희정(2010)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자막 번역 동호인 클럽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 번역이라고 하여 오역이나 번역투 문제에서 마냥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비전문 번역가들에 의한 자막 번역은 오역은 물론이고 더욱 심각한 번역투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 학계에서 번역투에 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짚어보고, 영한 번역문에 나타난 번역투의 실례를 바탕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2. 번역투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

번역투 문제를 학문적인 관점에서 가장 깊이 있게 다룬 연구자로는 김정우(2003, 2007, 2010, 2011)를 들 수 있는데, 먼저 국어 교과서의 외국어 번역투에 대해 고찰한 김정우(2003)에서는 한문과 일본어 번역투에 비해 영어 번역투가 그 유형과 빈도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영어 번역투는 주로 영어 구문 형식의 전이, 굴절 형식의 전이, 전치사 구의 전이 등으로 발현된다. 김정우(2007)에서는 연구자들이 번역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번역투에 대한 입장이 언어적 관점, 문화수용적 관점, 정치역학적 관점에서 달리 정리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번역투와 관련된 주요한 주제를 논의하는 데에 있어 실제 외신 기사에서 발췌한 구문 형식과 굴절 형식, 전치사 구, 문장 부호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나타난 번역투의 용례와 개선된 번역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김정우는 가치중립적으로 번역투에 접근하는 언어적 관점에 입각해서 논의를 진행하면서, 번역투의 발생 요인을 언어 외적 요인과 언어 내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번역투의 파급 효과를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논의했다. 김정우(2010)은 번역투 연구의 현황을 개괄하고 그 개선 방안을 단기적 처방과 장기적 처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번역투 문제에 대한 대처는 먼저 번역투의 발생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기존의 번역투 연구가 대부분 이론에 치중한 연구였음을 지

적하면서 실제 번역 품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대처 방안을 찾는 쪽으로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번역투 연구는 국어학적 접근과 번역학적 접근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이 점은 김정우(2011)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전자는 번역의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물인 영한 번역문만을 놓고 그것이 국어 문장으로서 적절한가의 여부를 분석하는 접근법이고, 후자는 번역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를 번역의 일부로 고려하는 것이며, 결과물인 영한 번역문이 그 자체로서 갖는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접근법이다. 이근희(2005)는 번역투의 개념과 기능, 유형, 발생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는데, 초보자와 전문가의 번역을 비교하여 '품질이 낮거나 서툰 번역'이 번역투에서 비롯된 것이며, 초보 번역가의 경우 모국어인 한국어에 대한 지식 부족, 독자의 가독성을 위한 배려 부족 등이 원인이 되어 번역투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전문가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영한 번역문과 한국어 비번역문의 비교 말뭉치를 이용하여 피동문의 행위자 표시 'by'의 번역투 용례를 추출하고, 번역투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 점에서 실증적 연구로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근희(2008)에서는 과학 기술 분야 번역 텍스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번역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글로벌 동향 기사 100건⁵⁾에 나타난 번역투의 용례를 추출하고 이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고친 대안 번역을 제시했다. 번역투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이 곧 실무 번역 현장에서 번역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직결됨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번역투 예방을 위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번역 교육 방법을 제시한 이미경(2007)이나 기존 번역투 논의의 확대를 목표로 번역투와 번역자투를 구분한 류현주(2008),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5) 글로벌 동향 기사(GTB)에 대해서는 이근희(2008: 274)의 각주 2) 참조.

소설 텍스트를 기반으로 번역투의 개념과 유형, 장점과 단점을 논의한 김도훈(2009) 등이 있다.

번역투 문제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시기적으로 보아서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번역에 대한 실증적, 기술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에 번역투 문제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번역의 중심이 원천언어, 원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에서 목표언어, 목표 텍스트, 그리고 목표 텍스트의 수용자인 독자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3. 영한 번역 사례를 통해 본 번역투 문장

그러면 실제 영한 번역문에 나타난 번역투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에는 여러 범주의 발현 양상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구문 형식과 관련된 번역투, 굴절 형식과 관련된 번역투, 전치사구와 관련된 번역투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3.1. 구문 형식과 관련된 번역투

영어와 한국어는 언어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보니 영한 번역문에서 영어의 구조가 그대로 전이된 번역투 문장이 많다. 심지어는 원래부터 한국어의 용법이 그러했던 것으로 착각이 될 만큼 번역투 문장이 널리 쓰이고 있다.

(1) 사랑하는 처자를 가진 가장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김정우 2007)

위의 (1)은 영어의 전형적인 소유 구문을 나타내는 동사 'have'의 흔적을 느끼게 한다. 자연스러운 국어 표현으로 하자면 김정우(2007)에서 제안하였듯이 '사랑하는 처자가 있는 가장은……' 이나 '사랑하는 처자가 딸린 가장은……' 정도로 고쳐 쓸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예를 한번 보자.

(2) ST: She has a book under her arm.

직역: 그녀는 책을 옆구리에 가지고 있다.

대안 번역: 그녀는 책을 옆구리에 끼고 있다.

(이근희 2005)

(3) ST: She has a sweet voice.

직역: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대안 번역: 그녀는 목소리가 아름답다.

(이근희 2005)

용례 (2)와 (3) 역시 'have'의 여러 의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지다'라는 표현만을 대응시키다 보니 부자연스러운 번역투가 발생한 경우이다. 대안 번역에서 제시한 것처럼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have'는 '가지다'라는 식의 영어 구조가 그대로 전이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영어의 구문 형식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가를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4) ST: He was too intelligent and perceptive not to feel the disappointment of his admirers from the 1930s.

직역: 그는 1930년대부터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느낄 실망감을 눈치채지 못하기에는 너무 똑똑하고 예민했다.

대안 번역 1: 그는 워낙 똑똑하고 예민해서 1930년대부터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느낄 실망감을 눈치챘다.

대안 번역 2: 그는 1930년대부터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느낄
 실망감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았고
둔감하지도 않았다.

(이희재 2009)

위 용례 (4)는 'too~not to'의 구문이 그대로 전이된 경우를 보여주는 예로, '~기에는 너무 ~해서 ~했다.'에서 보는 것처럼 영어 문장 구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원천언어의 문장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는 직역으로 문법적으로나 의미면에서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원문의 구조를 그대로 상기해 낼 수 있는 어색한 번역투 문장이 되고 말았다. 맥락을 고려한 대안 번역 (1)이나 (2)에서 보듯이 원문의 구조에 얽매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번역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 하나 영어 문장 구조의 간접 현상으로 일어나는 번역투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수동태 문장이다. 영어에서는 타동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자연히 수동태 문장을 많이 쓴다. 'by + 행위자'의 형태로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행위자를 명확히 밝히고 싶지 않을 때, 피해(자)와 수혜(자)를 나타낼 때 수동태를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국어는 영어와 달리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이 엄격하지 않을 뿐더러, 타동사 다음에 반드시 목적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국어와 영어의 이런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고 영어의 문법 구조를 그대로 옮겨 놓을 경우 어색한 우리말이 된다.

(5) ST: The thief was caught by a brave citizen.

직역: 그 강도는 용감한 시민에 의하여 붙잡혔다.

대안 번역: 그 강도는 용감한 시민한테(에게) 붙잡혔다.

(김정우 1996)

(6) ST: In traditional Chinese culture, marriage decisions were made by parents for their children.

직역: 전통적인 중국 문화에서 결혼에 대한 결정들은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부모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대안 번역: 중국의 전통문화로는, 혼인 결정을 자식 대신 부모가 했다.
(이근희 2005)

(7) ST: A good deal of effort was put into designing striking red posters and leaflets advertising the meeting.

직역: 집회를 알리는 붉은 벽보와 전단을 만드는 데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졌다.

대안 번역 1: 집회를 알리는 붉은 벽보와 전단을 만드는 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대안 번역 2: 집회를 알리는 붉은 벽보와 전단을 만드는 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다.

(이희재 2009)

위 용례 (5)와 (6)은 행위자가 명시된 수동태 문장이고, (7)은 행위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런데 각각의 용례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수동태 구문의 형태가 그대로 전이된 직역의 경우 우리말로서는 매우 어색한 번역투 문장이 되고 만다. 대안 번역에서와 같이 능동형으로 바꾸어 주면 훨씬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이 된다.

3.2. 굴절 형식과 관련된 번역투

영어는 성(gender), 수(number), 격(case)이 의무적으로 굴절하는 언어이지만 국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양 언어의 문법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번역하다 보면 어색한 문장이 되기 쉽다. 다음의 예를 보자.

(8) ST: Most of them do not know that there are new ideas and methods about hunting for a good job.

직역: 그들 대부분은 좋은 직장을 얻는 데는 새로운 아이디어들과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대안 번역: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좋은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남다른 생각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근희 2005)

영어가 복수형이라고 해서 우리말에서도 그대로 복수형 표지 ‘들’을 써서 옮기다보니 위 (8)의 경우처럼 어색한 표현이 되어 버렸다. 국어에서는 복수 표시가 꼭 접미어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대안 번역의 경우처럼 접미어 없이도 부사 등을 이용하여 수가 여럿이라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정우(1996)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국어의 ‘-들’은 단순히 복수 표시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느낌’의 차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 책이 많다.’와 ‘도서관에 책들이 많다.’에서 밑줄 친 부분은 영어로는 둘 다 복수형 ‘books’로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전자의 경우 도서관에 그저 책이 많이 있다는 느낌을 주고 후자는 도서관에 여러 종류의 다양하게 많이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므로 영어의 복수 접미사 ‘-s’를 무조건 국어의 ‘-들’로 바꾸는 식의 번역은 미세한 의미를 놓치거나 심하면 오역을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문장 전체의 의미와 맥락을 신중하게 따져서 번역하여야 할 것이다.

3.3. 전치사구와 관련된 번역투

‘~에 관하여’, ‘~로부터’, ‘~에 의해’ 등과 같은 표현들이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질 만큼 영어의 전치사구는 우리말 문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9) ST: The two, having quitted their life in the upper story of the bar, moved into the suburbs and lived together with Nora's baby, Judy.

직역: 두 사람이 주점의 2층에서의 살림을 그만두고 교외로 이사하여 노라의 아기 주디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안 번역: 두 사람이 주점의 2층에서 시작한 살림을 그만두고 교외로 이사하여 노라의 아기 주디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정우 1996)

위 용례 (9)에서 보듯이 영어 원문의 전치사구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색한 문장이 되고 만다. 대안 번역의 경우처럼 전치사구를 풀어서 써주면 훨씬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이 된다. 김정우(2007)에서 발췌한 몇 가지 용례를 더 살펴보자.

(10) 그 사람으로부터 잘잘못을 들은 다음,……(from)

(11) 생물학적 목적이 없는 웃음의 유일한 기능은 ‘긴장으로부터의 해방’이다. (from)

(12) 이번 기회를 통해……새로운 변형의 멋도 선보이고,……(through)

(13) 제일 긴 그 다리가 폭격에 의해 아깝게 끊어진 뒤로는……(by)

위의 표현들은 각각의 문맥에 따라 ‘그 사람에게서’, ‘~긴장에서 벗어나는’, ‘~기회에’, ‘~폭격으로’ 등과 같이 자연스럽게 바꾸어 줄 수 있다.

4. 맺는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간 학계에서 이루어진 번역투 연구와 영한 번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몇 가지 번역투 문장의 용례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잘못 쓰이는 사례를 위주로 보았지만, 우리말에는 없는 새로운 개념이나 문화적 특수어를 번역할 때에는 부득이 번역의 흔적을 남겨야 할 때도 있다. 또한 독자들에게 원천 텍스트의 낯선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번역투를 활용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번역가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번역투를 사용하는 것과 전체 맥락에 대한 고려나 우리말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무의식적으로 번역투를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 체계도, 그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문화적 배경도 완전히 다른 남의 나라 말을 우리말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번역의 첫 단계는 원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니 좋은 번역을 위해서는 당연히 능숙한 외국어 실력이 기본이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결과물을 생산해 내려면 그에 못지않은 모국어 실력이 겸비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은 ‘외국어 좀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다. 앞서 살펴본 번역투 문장의 용례에서도 보았듯이 흔히 나타나는 번역투 문장들은 다채로운 우리말 표현을 찾기 위한 노력을 조금만 더 기울이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번역 현장에서도 그리고 학계에서도 우리말에 없는 새로운 표현을 받아들이는 데 꼭 필요한 번역의 흔적은 남기되 불필요한 흔적은 없애려는 노력, 원천 텍스트에 담겨 있는 이국적 느낌은 살리되 우리말 표현의 다양성과 자연스러움을 지켜 가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김정우(1996), 《영어를 우리말처럼 우리말을 영어처럼》, 창문사.
- 김정우(2003), 국어 교과서의 외국어 번역투에 대한 종합적 고찰, 《배달말》, 33, 배달말학회, 3~26.
- 김정우(2007), 번역투의 성격 규명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 《번역학연구》, 8(1), 61~82.
- 김정우(2009), 영-한 번역과 시점의 이동, 《통번역교육연구》, 7(1), 115~136.
- 김정우(2011), 영어 번역 한국어의 문체와 어휘, 《한국어학》, 53, 1~27.
- 류현주(2009), 번역투와 번역자투, 《번역학연구》, 10(2), 7~22.
- 이근희(2005), 《영-한 번역에서의 번역투 연구》, 세종대 영문과 박사학위논문.
- 이근희(2008), 번역투 관점에서 본 번역 텍스트의 품질 향상 방안, 《번역학연구》, 9(4), 271~289.
- 이미경(2007), 번역투 배제를 위한 교육수단으로서 지역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5(1), 163~180.
- 이희재(2009), 《번역의 탄생》, 교양인.
- Jacobson, R.(1959),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R. A. Brower, (Ed.), *On Translation*. Massachusettes: Harvard University Press.